第165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3年11月23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

議事日程

1.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계속)
2. 教育法中改正法律案(계속)
3. 障礙人教育에 관한基本法案
4.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

審査된案件

1.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1面
2. 教育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1面
3. 障礙人教育에 관한基本法案(朴錫武·洪起薰·金元雄·張永連議員外 90人 發議) 5面
4.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5面

(14時54分 開議)

○委員長 趙舜衡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次 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教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法案審査小委員會 審査報告를 들은 후 障礙人教育에 관한基本法案과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을 上程하여 審査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 教育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委員長 趙舜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教育法中改正法律案을 一括하여 계속 上程합니다.

먼저 法案審査小委員會의 審査報告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審査小委員會의 委員長이신 金仁泳委員 나오셔서 小委員會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金仁泳 法案審査小委員會 委員長 金仁泳委員입니다.

政府에서 提出한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및 教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當 小委員會가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當 小委員會는 1993年11月22日 第2次 法案審査小委員會 會議에서 教育部次官을 비롯한 關係官을 出席시킨 가운데 여러 委員님께서 提示하신 意見を 중심으로 同 法案들을 진지하게 審査하였습니다.

그 審査結果를 말씀드리면, 먼저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修正議決하는 바 그 修正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案 第19條中 “大學의 長 또는 副總長·單科大學長·大學院長”을 “大學의 長 또는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으로 修正함으로써 案 第5條·第27條·第28條 등과 均衡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案 第29條에서는 條文構成上 漏落되었던 세가지 事項을 補完하였는 바 ① 第2項중 教育監의 推薦을 받아 教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하는 範疇에 市·道 教員研修機關의 長을 插入하고, ② 第3項중 教育部長官이 任用權을 갖는 市·道獎學官 및 教育研究官의 경우에 當해 教育監의 推薦節次를 追加하였으며 ③ 第4項중 教育部

長官이 任用하는 教育專門職의 轉補는 당해 教育監이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案 第49條第3項에서는 教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 단위로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 任用推薦權者 단위에도 이를 둘 수 있도록 補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教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案 第98條가 規定하고 있는 學齡兒童 就學義務의 免除 또는 猶豫事由중 “保護收容하여야 할 정도로 障礙가 심하거나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를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修正함으로써 보다 순화된 表現과 用語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部分은 原案議決하였습니다.

끝으로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도 原案에 合意하였으나 交通稅法案 審査를 기다려 處理하기로 하였음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當 小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當 小委員會에서 手苦해 주신 具昌林委員, 朴範珍委員, 李龍三委員, 朴錫武委員, 洪起蕪委員, 鄭周逸委員님과 關係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舜衡 金仁泳小委員長을 비롯한 小委員會 委員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小委員會 審査報告 내용에 대하여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다 철저한 法案審査를 위하여 國會法 第58條1項의 규정에 의하여 逐條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議事日程 순서에 따라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의 改正條文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專門委員입니다.

배부해드린 新·舊 條文對比表 11페이지입니다.

第2條2項입니다.

「이 法에서 教育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立 또는 公立의 學校 또는 機關을 말한다.」 2號에서 「第39條1項의 規定에 의한 研修機關」 이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意見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第3項에서 「서울特別市·直轄市·道」를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이하市·道라 한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다음은 第5條입니다.

大學人事委員會 第1項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의 補職同意 및 教授·副教授·助教·專任講師·助教의 任用同意 기타 大學敎員의 人事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學(教育大學·師範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 및 專門大學을 포함하되, 大學의 單科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人事委員會(이하 “大學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第12條 特別採用 第1項1號에서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로 바꾸고 있는데 第1號는 91年度 法 改正때 國家公務員法이 改正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舜衡 意見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다음에는 名譽退職 條項이 원래는 國家公務員法 第49條였는데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가 되어서 준용조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舜衡 意見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다음에 19條 兼職禁止에서 「大學의 長, 總長 및 學長」을 「大學의 長」이라고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委員長 趙舜衡 意見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襄重燮 「第22條(教育研修機關 등의 敎員의 配置) 教育部長官 또는 教育監은 敎育이나 敎育에 관한 専門적인 調査·研究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教育研修機關과 教育研究機關에 敎員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襄重燮 그밖에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의 28條까지는 용어의 정리에 불과합니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襄重燮 다음은 29條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獎學官 등의 任用, 第1項 「教育部와 그 所屬機關에 근무하는 獎學官 및 教育研究官은 教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第2項 「教育監 소속 獎學官 및 教育研究官 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教育監의 추천을 받아 教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1. 教育行政機關에 근무하는 市·道教育廳 課長級 이상의 職位에 해당하는 者», 「2. 市·道教育研修機關의 長», 「3. 市·道教育研究機關의 長», 「4. 市·道敎員研修機關의 長」 이렇게 됩니다.

○委員長 趙舜衡 예,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襄重燮 다음에는 第3項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專門職員의 教育監 소속의 獎學官 및 教育研究官은 당해 教育監의 추천을 받아 教育部長官이 任用한다」

第4項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教育專門職員의 轉補는 教育部長官이 행하고,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部長官이 任用하는 教育專門職員의

轉補는 教育監이 행한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襄重燮 다음은 「第29條의2(校長의 任用) ①校長은 教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任命」을 「任用」으로 바꾼 것입니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襄重燮 그밖에 23페이지, 24페이지는 條文의 정리에 불과합니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없으시지요?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襄重燮 다음 第47條 「教育公務員(任期職教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停年이 達한 날이 속하는 學期의 末日에 당연히 退職된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없으시지요?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襄重燮 第49條 부터는 苦衷處理에 관한 사항입니다. 第1項 「教育公務員은 누구나 人事·組織·處遇 등 각종 職務條件과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2項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이를 苦衷審査委員會에 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 등 公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項 「教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教育部에 教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를, 任用權者·任用提請權者 또는 任用推薦權者 單位로 教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를 두되, 教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의 機能은 敎員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에 의한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서 이를 이를 管掌한다」

第4項 「教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는 教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副教授 이상의 大學敎員과 第29條 第1項·第2項 및 第29條의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獎學官·教育研究

官 및 校長의 苦衷을 審査한다。」

第5項 「教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助教授이하의 大學敎員과 第29條第3項 및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部長官이 任用하는 教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第6項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5項에 規定된 教育公務員의 苦衷이 任用權者를 달리하는 2이상의 機關에 관련된 경우에는 教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서, 原所屬機關의 教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苦衷을 審査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直近 上級機關의 教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각각 이를 審査할 수 있다。」

第7項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審査結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8項 「教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구성·權限·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第53條는 조문 정리에 불과합니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없으시지요?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다음에는 教育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新·舊條文對比表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第98條(就學義務의 免除등) 學齡兒童이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就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96條 및 第102條의2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를 免除하거나 猶豫할 수 있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있으십니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第107條2의(高等學校入學方法) 高等學校의 入學은 第10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選拔方法에 의한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있으십니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新設되는 第9章의3 「國際教育 및 國際教育協力」 第162條의3 國際教育 國家는 國民으로 하여금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의 國際的 素養과 力量을 가질 수 있도록 國際化教育에 노력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國外에서의 우리나라에 관한 教育·研究活動의 지원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있으십니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第162條의4(國際教育協力) 國家는 外國政府·國際機構 및 外國의 教育機關·團體등과 教育에 관한 協力を 위하여 教育關係者 및 教育에 관한 情報의 交流, 教育關係 國際行事的 開催 및 참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教育協力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있으십니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다음에는 新設되는 「第9章의4 補則」 「第162條의5(聽聞) 監督廳은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意見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相對方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委員長 趙舜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專門委員 裴重燮 다음은 「第162條의6(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教育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監에게 委任할 수 있다。」

○委員長 趙舜衡 예,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逐條審査를 종결하고 各

各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小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教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小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教育部次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李千洙 존경하는 趙舜衡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國政審議의 바쁜 일정 가운데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을 審議 議決하여 주셔서 教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간소화를 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教育公務員의 苦衷審査制度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教育法中改正法律案을 審議 議決하셔서 高校入試制度의 자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國際化時代가 요구하는 「國際教育 및 國際教育 협력」 추진에 관한 章을 신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法案審査過程에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신 문제와 高見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兩大 改正法律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法運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3. 障礙人教育에관한基本法案(朴錫武·洪起蕪·金元雄·張永達議員外 90人 發議)

4.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15時15分)

○委員長 趙舜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朴錫武議員, 洪起蕪議員, 金元雄議員, 張永達議員外 90인이 發議한 障礙人教育에관한基本法案, 議事日程 第4項 政府가 제출한 特殊

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 이상 2件은 關聯 法律案이므로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먼저 第3項에 대해서 發議者를 대표하여 張永達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永達議員 民主黨의 張永達議員입니다.

障礙人教育에관한基本法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趙舜衡 教育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法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特殊教育振興法은 그간 장애인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다 선진적이고 폭넓은 장애인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완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本法을 制定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만 3세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고, 둘째, 통합교육과 순회교육 등 다양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셋째,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교육기관에 배치하기 위해 特殊教育判別委員會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넷째로, 만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전까지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早期教育園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기관으로 국가에서 特殊教育研究院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障礙人教育에 관한 基本法案의 提案理由와 主要骨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 委員님들께서 깊이 통찰하셔서 原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舜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에 대하여

教育部次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李千洙 教育部次官입니다.

教育部長官께서는 지금 현재 豫決委員會에 참석중이므로 제가 대신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여러분!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法律案은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각자의 能力과 障礙程度에 따라 적절하고 고른 教育의 機會를 提供하고, 새로운 先進特殊教育方法을 導入하여 特殊教育의 質的向上을 도모하며, 特殊教育 支援體制를 擴大하는 등 現行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特殊教育 需要에 능동적으로 對處하고 장애인에 대한 教育機會를 擴大하려는 것입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중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診斷·評價된 사람을 特殊教育對象者로 選定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진단·평가할 때에는 그 保護者에게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도록 하며, 둘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教育綜合計劃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就學指導, 특수학교 敎員의 養成 및 研修,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業務를 遂行하도록 하고, 셋째, 특수교육기관중 義務教育이 아닌 幼稚園과 高等學校의 과정에 취학하는 特殊教育對象者의 教育도 이를 無償으로 하고, 無償教育 실시에 따르는 費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하며, 넷째, 국·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收容施設이 不足하거나 義務教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私立의 特殊教育機關에 教育을 委託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通學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管轄하는 教育監은 당해 特殊教育對象者에게 宿食施設을 提供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經費를 支給하도록 하고, 이섯째, 교육감은 學齡期가 지났거나 教育을 받지 못하고 있는 特殊教育對象者가 收容되어 있는 障礙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醫療機關 또는 家庭 등에 特殊學校敎員을

巡迴하도록 하거나 派遣하여 教育을 실시하도록 하며, 일곱째, 一般學校의 長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保護者나 特殊教育機關의 長이 統合教育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며, 特殊教育에 필요한 教材·敎具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便宜施設을 갖추도록 하고, 여덟째, 각급학교의 長은 특수교육대상자의 能力 및 特性에 적합한 個別化 教育方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能力을 최대한 啓發하도록 하며, 끝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特殊教育 敎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 및 研修를 實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의 趣旨를 깊이 이해하시어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舜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件의 法律案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襄重雙 專門委員입니다.

1993年5月13日 朴錫武議員外 93人의 發議로 提出되어 同年 5月18日 當 委員會에 回附된 障礙人教育에 관한 基本法案(이하 편의상 「民主黨案」이라 함)과 1993年9月23日 政府로부터 提出되어 同日字로 當 委員會에 回附된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이하 편의상 「政府案」이라 함) 이상 2件의 法案에 대하여 檢討한 結果를 一括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I.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1. 障礙人教育에 관한 基本法案

가. 提案理由

1979년부터 施行되어 온 特殊教育振興法은 우리나라 障礙人教育의 環境을 改善하는데 일정한 寄與를 하였음. 그러나 時代의 變化에 따라 障礙人教育 機會의 完전한 確保를 위한 새로운 理念과 要求들이 浮刻되고 있음. 또한 앞으로 先進特殊教育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現行의 特殊教育振興法을

대신하여 보다 具體的이고 폭넓은 내용을 規定한 새로운 法制定이 時急함.

따라서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完전한 教育機會를 보장함으로써 自主的인 生活能力을 길러 社會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本法을 制定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①이 法은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를 規定하여 적절하고 균등한 教育機會를 보장함으로써 自主的인 生活能力을 기르는 것을 目的으로 함(案 第1條).

②特殊教育對象者라 함은 視覺·聽覺·精神·肢體·情緒·言語·學習 障礙人 및 기타의 心身障礙人으로 함(案 第3條).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教育의 발전을 위하여 綜合計劃의 수립과 特殊教育機關의 設置등 諸般施策을 講究토록 함(案 第4條).

④特殊教育對象者는 滿3歲부터 中學校까지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教育은 無償으로 함(案 第5條 및 第6條).

⑤特殊教育對象者의 教育을 위한 教科用圖書는 無償으로 함(案 第9條).

⑥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特殊教育機關에 대하여 國·公立 特殊教育機關과 같은 水準의 運營費를 補助하여야 함(案 第13條).

⑦特殊教育對象者의 判別 및 教育機關에의 배치등을 위하여 中央과 市·道 및 市·郡·區에 特殊教育判別委員會를 설치함(案 第15條 및 第16條).

⑧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早期教育園을 설립·경영할 義務가 있으며 學校法人 또는 社會福祉法人에 委託經營할 수 있음(案 第23條).

⑨早期教育園에 就園할 수 있는 사람은 滿3歲부터 國民學校 就學전까지의 特殊教育對象者로 함(案 第28條).

⑩地方自治團體는 필요에 따라 障礙人을 위한 特殊學校 및 特殊學級을 설치해야 함(案 第31條 및 第33條).

⑪特殊教育機關은 進路教育과 職業教育을 실시해야 함(案 第35條 및 第36條).

⑫國家는 特殊教育의 발전을 위하여 教育課程·教材 및 敎具開發등을 담당하는 特殊

教育研究院을 설립함(案 第40條).

⑬이 法의 실시와 동시에 特殊教育振興法은 法律로서의 效力을 상실함(案 附則 第2項).

2. 特殊教育振興法改正法律案

가. 提案理由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各自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하고 고른 特殊教育의 機會를 제공하고, 새로운 先進特殊教育方法을 도입하여 特殊教育의 質的 향상을 도모하며, 特殊教育支援體制를 확대하는 등 現行規定의 일부 未備點을 改善·補完함으로써 최근 社會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特殊教育需要에 능동적으로 對峙하고 장애인에 대한 教育機會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①教育部長官 및 教育監은 장애인중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診斷·評價된 사람을 特殊教育對象者로 선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診斷·評價하는 때에는 그 保護者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도록 함(案 第3條第1項 및 第4條).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教育綜合計劃의 수립, 特殊教育對象者의 就學指導, 特殊學校敎員의 養成 및 研修, 特殊教育機關의 설치·경영등 特殊教育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案 第5條第1項).

③特殊教育機關중 義務教育이 아닌 幼兒園과 高等學校의 課程에 就學하는 特殊教育對象者의 教育도 이를 無償으로 하고, 無償教育에 드는 費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함(案 第6條).

④國·公立의 特殊教育機關의 收容施設이 부족하거나 義務教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의 特殊教育機關에 教育을 委託할 수 있도록 함(案 第7條).

⑤通學이 어려운 特殊教育對象者의 住民登錄地를 관할하는 教育監은 당해 特殊教育對象者에게 宿食施設을 제공하거나, 宿食에 필요한 經費를 支給함(案 第9條第3項).

⑥教育監은 學齡期가 지났거나 教育을 받지 못하고 있는 特殊教育對象者가 收容되어 있는 障礙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醫療機關 또는 家庭등에 特殊學校敎員을 巡廻하도록

하거나 派遣하여 教育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對策을 마련하도록 함(案 第12條 第2條).

⑦ 一般學校의 長은 特殊教育對象者 또는 그의 保護者나 特殊教育機關의 長이 統合教育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特殊教育에 필요한 教材·教具 및 特殊教育對象者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案 第13條).

⑧ 各級學校의 長은 特殊教育對象者의 능력 및 特性에 적합한 個別化教育方法을 강구하여 特殊教育對象者의 능력을 최대한 開發하도록 함(案 第14條).

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學校敎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 및 研修를 실시하도록 함(案 第19條).

II. 檢討意見

兩法案은 特殊教育의 需要增大와 特殊教育活性化의 必要性에 대한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여 特殊教育對象者에게 各자의 능력과 障礙程度에 따라 均衡한 教育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先進教育方法을 도입하여 特殊教育의 質的向上을 도모하며, 그 支援體制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아의 自活能力을 향상시킬 目的으로 提案된 法案으로서 民主黨案은 6章 42條 및 附則으로, 政府案은 8章 20條 및 附則으로 되어 있습니다.

兩法案은 그동안 公聽會등을 통하여 有關단체와 전문가의 意見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공통점이 있으나 民主黨案은 現行 特殊教育振興法을 폐지하고 새로운 法을 制定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政府案은 現行法을 全面 改正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선 形式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

다. 그러나 兩法案은 모두 現行 特殊教育振興法의 내용을 修正·補完하고 있기 때문에 一部 事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볼때 많은 類似點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現行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說明드리고, 이어서 主要事案別로 兩法案의 차이점에 대해서 檢討한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1. 特殊教育對象者에 대하여(民主黨案 第3條, 政府案 第3條)

現行法 第3條는 특수교육대상자를 障礙의

종류별로 7個項으로 分類하고 있으나 兩法案은 이에 「學習障礙」를 추가하여 8個項으로 분류하는 한편 現행법상의 精神薄弱을 民主黨案에서는 「精神障礙人」으로 그리고 政府案에서는 「精神遲滯」로 表記하고 있습니다. 「學習障礙」를 追加한 것은 學習에 障礙가 있는 者, 예를 들어 읽기는 하지만 쓰기를 못하는 경우 特殊教育을 통하여 正常機能을 回復할 수 있다는 可能性때문에 他障礙와 區分할 필요가 있으며, 精神遲滯 또는 精神障礙로 表記한 것은 「薄弱」이라는 用語에 대한 拒否反應을 고려한 醇化된 表現을 使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遲滯」는 發展可能性을 내포하는 概念으로 教育을 통해서 正常機能을 회복할 수 있다는 面에서 「精神障礙」보다는 「精神遲滯」로 表現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民主黨案에서는 「視覺障礙人」등과 같이 障礙의 종류별로 사람을 함께 表記하고 있는데 반하여 政府案에서는 障礙의 종류만 表記하고 사람을 함께 表記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統合教育에 대하여(民主黨案 第7條, 政府案 第13條)

民主黨案과 政府案은 現行法에 規定이 없는 統合教育에 관한 規定을 모두 두고 있습니다.

統合教育은 특수아동을 一般學級에 등록하여 特殊教育을 받으면서 가능한 한 같은 또래의 집단과 相互交流을 시키는 教育으로서 격리된 分離教育보다는 各급적 정상적인 環境下에서 教育받을 수 있는 與件을 보장해 준다는 點에서 바람직한 先進教育方法으로 學習權保障의 차원에서 필요할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이 內實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一般學校의 시설·설비등의 整備와 일반敎사들의 素養 및 협조 그리고 전문적인 特殊教育師의 적절한 배치등 그 條件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施行令에서 구체적인 事項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差別의 禁止등에 대하여(民主黨案 第8條, 政府案 第11條)

民主黨案과 政府案에서는 現行法 第10條가 규정하고 있는 監督廳의 승인을 얻는 경우 入學志願의 거부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但書規定을 削除함으로써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大學入試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志願이 거부되거나 合格拒否등의 事例가 발생하여 물의가 야기된 點을 감안하면, 兩法案에서 差別의 구실을 없앤 것은 특수교육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4. 巡迴教育에 대하여(民主黨案 第10條, 政府案 第12條)

巡迴教育은 移動能力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障礙를 지니 通學이 어렵거나 一般學校에 在學하면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特殊學校敎師가 병원, 학교, 가정 및 기타 시설 등을 방문하여 指導하는 교육으로서 現行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民主黨案과 政府案에서는 이를 反映하고 있습니다.

많은 先進國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補完體制로 운영하고 있는 이 教育方法은 우리나라에서도 一部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重度障礙兒의 教育權保障 次元에서 앞으로 擴大實施가 要望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1962年 當時 釜山市教育委員會가 복지시설에 수용된 重症肢體不自由兒에 대해 이 教育方法을 처음 실시한 이래 많은 效果를 거두어 확산되고 있는 바, 현재 서울등 6個 市·道 13個校 93個所에서 23명의 敎師가 209명의 兒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5. 通學 또는 就學便宜등에 대하여(民主黨案 第32條, 政府案 第9條)

民主黨案 第32條와 政府案 第9條는 現行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通學便宜」 또는 「就學便宜」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寄宿舍設置와 通學버스 運行을 明文化하는 한편 寄宿舍 운영에 필요한 要員(民主黨案 保育師, 政府案 生活指導員)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制度는 巡迴教育와 함께 特殊教育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實踐하려는 試圖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教育方法이라 생각됩니다.

다.

특히 政府案 第9條第3項은 이에 追加하여 通學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의 住民登錄地를 관할하는 教育監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宿食施設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內實있는 특수교육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6. 特殊教育判別委員會에 대하여(民主黨案 第2章第15條~22條)

民主黨案에서는 第2章에 特殊教育對象者의 早期發見 및 判別과 障礙의 종류와 정도에 맞는 教育機關에의 配置를 위하여 各級特殊教育判別委員會를 두도록 하고 同委員會의 構成·任務·判別基準 및 方法, 配置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案 第3條第2項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診斷·評價 및 選定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民主黨案 내용의 대부분은 現행 特殊教育 振興法 施行規則과 市·道條例에 규정되어 있는 內容을 母法에 格上시킨 것입니다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民主黨案은 中央判別委員會, 市·道判別委員會, 市·郡·區判別委員會로 區分設置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現행 制度는 市·道와 市·郡·區, 그리고 特殊教育機關에 이를 두고 있으며, 둘째, 民主黨案은 第21條에 異議申請 規정을 두어 下級判別委員會의 決定에 異議가 있을 경우 이를 上級判別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審級制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現행제도는 이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 判別委員會制度에 대해서는 「判別」이란 用語에 拒否感이 있어서 이를 “査定”으로 變更하자는 意見이 있으며, 本來의 취지와는 달리 이 制度가 障礙兒의 就學機會를 사실상 박탈하는데 利用되는 등 不公正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非難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 委託教育에 대하여(政府案 第7條)

政府案 第7條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國·公立 特殊教育機關의 收容施設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義務教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私立特殊教育機關에 교육을 委託할 수 있는 根據規定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現行法과 民主黨案에 없는 내용으로서 현재 106個 특수학교중 72個校가 사립특수학교이고 이 私立이 전체학생의 64%를 수용하고 있는 現實을 감안할 때 委託教育規定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 制度가 채택되면, 앞으로 私立特殊學校에 다니는 學生들의 學父母는 國·公立特殊學校와 同·한 수준의 教育환경과 條件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불매 特殊教育의 內實化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國·公·私立間의 教育差 解消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個別化教育에 대하여(政府案 第14條)

政府案 第14條는 各級學校의 長이 특수교육대상자의 能力 및 특성에 적합한 個別化教育方法을 강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 啓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바 이는 現行법과 民主黨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個別化教育은 개인의 知能, 學習能力, 情緒, 學習習慣, 生活類型등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맞도록 學習環境, 學習方法, 學習內容을 선택·지도하는 教育을 의미하는 바, 個人的 特性과 能力을 고려한 教育이라는 點에서 自律動機誘發, 失敗感의 最小化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學業遲遲일 경우에도 용기를 줄 수 있는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는 點에서 적의한 規定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兩法案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說明드리겠습니다.

9. 義務教育과 無償教育에 대하여(民主黨案 第5條 및 第6條, 政府案 第6條)

民主黨案 第5條第1項은 특수교육대상자는 滿3歲부터 中學校까지의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고 規定하고, 同條第2項에서 국가와 모든 국민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第1項에 의한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지도록 規定함으로써 幼稚園부터 中學校까지를 義務教育化하도록 規定하는 한편 第6條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와 教育法 第143條에 의한 專攻

科 教育을 받는 사람에 대한 教育은 無償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政府案 第6條는 特殊教育機關중 幼稚園 및 高等學校의 과정에 就學하는 特殊教育對象者의 教育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고 規定함으로써 義務教育對象과 無償教育對象을 一部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政府案이 義務教育對象에서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特殊教育對象者를 明記하지 않은 것은 憲法 第31條 및 教育法 第8條 中學校義務教育實施에 관한 規程 第2條에 의해 이미 特殊教育對象者를 포함한 모든 國民에게 初·中等學校課程이 義務教育으로 되어 있어서 이 法에서 다시 規定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兩法案間의 가장 큰 差異點은 特殊幼稚園을 義務教育으로 하는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法體系上 教育에 관한 基本法인 教育法에서 관계규정의 改定이 先行되어야 할 뿐 아니라 收容施設등 이에 필요한 財源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항상 부족한 教育財政을 감안할 때 이를 當장 制度化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特殊幼稚園을 義務教育化하는데 소요되는 經費를 개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3세에서 5세까지 현재 未就學 7,350명의 重度障礙幼兒를 수용하는 경우 6學級(1學級當 10名)규모 122個園이 필요한 바, 이에 필요한 經費는 新設費 653億원, 年間運營費 151億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輕度를 포함한 未就學 전체 障礙幼兒 48,000여명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同一規模로 798個園이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經費는 新設費 4,271億원, 年間運營費 989億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特殊教育에 있어서 早期教育이 차지하는 重要性에 비추어 幼稚園課程의 特殊教育도 앞으로 義務教育化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義務教育으로 되어 있는 初·中學課程에 있어서 '93年現在 그 就學率이 41.7%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이 既存의 義務教育課程만이라도 조속히 正常軌道에 오를 수 있도록 當분간은 이를 위한 努力이

우선되어야 할 段階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 早期教育園 設立에 대하여(民主黨案 第3章第1節)

民主黨案은 第3章第1節에 早期教育園에 관한 규정을 두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早期教育園을 설립·경영할 義務를 지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政府案에서는 이에 관한 規定이 없습니다.

早期教育園이 어떤 機能을 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民主黨案 第28條에서 早期教育園에 취원할 수 있는 者를 特殊教育對象者로서 滿3歲부터 國民學校 就學전까지의 兒童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조기교육원은 特殊幼稚園으로 이해되며 民主黨案의 義務教育機關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早期教育園을 설립하려는 취지는 현재 無認可 상태에서 早期教室, 조기치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조기교육연구소등 各種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私設機關을 흡수·통합하여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責任下에 公教育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政府案에서 이에 관한 規定을 두지 않고 있는 理由는 教育法施行令의 幼稚園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特殊幼稚園을 設立할 수 있게 하고 現在の 無認可 私設特殊幼兒教育機關이 認可條件을 충족하는 경우 特殊幼稚園으로 認可해 줌으로써 無償教育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方針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11. 特殊教育研究院에 대하여(民主黨案 第40條)

民主黨案 第40條에는 國家가 특수교육의 종합적인 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教授計劃의 研究開發, 각종 教材, 教具 및 診斷·判別道具의 開發, 特殊學校 敎員研修등의 기능을 담당할 特殊教育研究院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政府案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教育部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國立特殊教育研究院을 지난 90년부터 年次計劃으로 京畿道 安山市에 建築中에 있으며 今年中 일부 內部 施設만 갖추면 來年初 開院할 수 있습니다.

당초 教育部는 이 기구에 관한 규정을 改正案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政府의 新設機關 억제와 公務員定員 凍結方針에 따라 法定機關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와 같은 政府의 方針에 변화가 없는 한 開院이 되더라도 同機關의 役割은 期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機關의 法定化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政府案 立法豫告時 수렴한 關聯團體의 의견에서도 一致를 보았습니다마는 市·道단 위에는 研修對象者가 障礙領域別로 分散되어 대상자가 적고 講師人力도 부족하여 研修가 不可能한 점과 또한 同 研究院이 政府의 定員凍結方針 樹立 이전부터 추진되어 지금까지 13億6,500萬원이 투자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法定機關화하여 특수교육발전에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 罰則에 대하여(民主黨案 第41條 및 42條)

民主黨案 第41條는 ①특수교육대상자에게 教育받게 할 義務를 위반한 者 ②허가없이 早期教育園을 설립한 者 ③早期教育園에 대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者에게 2年이하의 懲役이나 금고 또는 50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第42條는 ①특수교육대상자에게 不利益을 당하게 하거나 ②특수교육대상자의 配置를 위한 指定을 거절한 사람과 教育機關長에 대해 1年이하의 징역 또는 20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罰則條項은 특수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關心提高와 의무의 충실한 履行을 독려하기 위한 趣旨로 이해됩니다만 다른 法令과의 衡平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教育法에서는 義務教育에 대한 의무를 履行하지 않은 경우 5萬원의 過怠料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미 이들 法案과 관련해서는 當委員會의 公聽會計劃이 확정되어 있고, 또 言論界를 포함한 各界에서 많은 關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意見이 수렴되어 지금보다는 훨씬 進一步한 特殊教育制度를 앞으로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特殊教育의 實質的인 振興을 위해

서는 이 制度를 뒷받침하는 行政組織과 行政體系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公務員들의 關心과 意志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教育部에서 特殊教育行政을 專擔하는 職員은 普通教育局 義務教育課所屬으로 教育研究官 1名과 教育研究士 1名 計 2名 뿐이고, 市·道教育廳에는 初等獎學課內에 獎學官 1名과 獎學士 1名이 그리고 市·郡教育廳에는 總 177個廳 가운데 37個 教育廳에만 獎學士 1名이 있을 뿐임을 특별히 指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 順序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範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特殊教育對象者에게 教育기회를 확대하자는데 대해서는 與野間에 큰 異見이 없는 것 같습니다. 政府에서 내놓은 改正案과 民主黨에서 내놓은 法律案의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特殊教育對象者에게 教育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뜻은 큰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特殊教育對象者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教育을 시키려고 하면 法을 制定하는 것만으로는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法을 制定을 할 때에 그 法대로 실제로 教育을 시킬 수 있는 財源 즉 豫算의 뒷받침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專門委員 報告에 의하면 93年 현재 特殊教育對象者의 就學率이 41.7%밖에 되지 않습니다. 政府案대로 教育을 시키거나 또 民主黨案대로 教育을 시키거나 이 法案이 通過되면 아마 就學率은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政府案대로 國民學校 中學校를 완전 義務教育으로 하고 또 幼稚園課程하고 高等學校課程을 無償教育으로 할 때에 追加費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民主黨案대로 3세 이상 就學前 어린이 5세까지 幼稚園課程하고 國民學校

中學校까지를 義務教育으로 할 때에 追加費用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이 追加費用을 현재 우리 教育財源 가지고 실천이 가능한 것인지 그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舜衡 다음은 具昌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昌林委員 이 두가지 法案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經濟的으로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 特殊教育에 관심이 높아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教育部가 이 改正案을 내놓기까지 한 3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처리가 되면 언제부터 法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지금 朴範珍委員께서 豫算 걱정을 하셨는데 우선 教師數가 한 3,000餘名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일정한 資格을 갖춘 분들이나 이 特殊教育이라는 것은 兒童들을 有資格者에게 맡겨야지 조금이라도 資格이 미비한 사람들에 맡겨가지고는 이것은 教育이 안되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良質의 教師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特殊教育對象者가 重度 輕度 합쳐서 20萬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義務教育을 해 가지고 전부 教育을 받게 되면 教師確保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당장 學生들 모아놓고 教師가 없어 못가르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教師問題에 있어서 준비를 얼마나 해 놨느냐 그 다음에 이 教師들이 어디서 研修를 받느냐 무슨 資格證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教育擔當機關이 있습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專門機關이 없습니다.

○具昌林委員 어디서 教育을 받아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지금 大學에 委託을 해서 教育을 시키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면 資格證은 주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예, 資格이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무슨 資格을 줍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이분들도 1級正敎師 2級 正敎師로 되어 있는데 물론 特殊敎師資格證을 가지고 勤務年數에 따라서 昇級을 하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그것 가지고 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한 具體的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民主黨案에서 가장 政府案하고 틀린 것이 特殊教育研究院 이것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가지고 特殊教育行政을 하시는 분이나 特殊教育을 가르치는 분이나 또는 特殊學級을 설치하거나 巡迴教育을 하는 모든 關聯者들이 이 特殊教育研究院에서 어느정도 教育을 받고 特殊教育對象者들을 教育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學校만 만들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教育內容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法만 通過해 놓고 아주 불량한 教育을 몇年동안 실시한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나중에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學校를 이 法에 따라서 얼마나 더 增設해야 되느냐 어디다가 얼마를 增設하느냐 이런 總規模가 하나도 안나와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朴委員이 質疑한 總 豫算所要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教育部가 앞으로 몇年間 확보할 것이냐 그 年次計劃이 있어야 할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大學校 入學試驗에 不利益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體力章이나 健康診斷을 안해도 좋으나 그러면 一般學生들하고 平衡問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왕 罰則을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罰則을 넣는다면 障礙者에 대한 體罰은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社會救助機關에서 苛酷行爲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 이 特殊教育對象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높아질 때까지는 이 特殊教育對象者들

에 대한 保護措置가 완벽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體罰問題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教育部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舜衡 沈明輔委員 質疑해 주시죠.

○沈明輔委員 이 法案 자체에 대해서는 晚時之歎의 감이 있어요. 따라서 전적으로 同感을 표시하고 다만 教育部所管의 障礙人教育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에는 教育은 教育대로 하고 그 다음에 保社部 차원에서는 障礙人 이 사람들에게 대한 건강을 돌보는 이러한 문제 또하나 勞働部에서는 障礙人들에 대한 雇傭促進을 위해서 技術教育을 시킨다든가 이 세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움직여야지 教育만 덜렁 시켜가지고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것 하나만 묻고 싶어요. 이런 것을 협의할 때 政府內에서 保社部 勞働部와 함께 障礙人問題를 협의를 합니까?

○教育部次官 李千洙 합니다.

○沈明輔委員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有機的인 협조가 돼서 教育이 끝나면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教育 백날 해봐도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自閉症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 自閉症은 일곱가지인가 여덟가지 분류한 중에 어느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情緒障礙에 들어가 있습니다.

○沈明輔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朴錫武委員 質疑해 주세요.

○朴錫武委員 아까 具昌林委員께서 特殊教育研究院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政府에서도 사실은 政府가 제안한 法案이 通過되기 전에 또 저희 黨案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特殊教育研究院에 대한 설립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專門委員 지적에 의하면 公務員 定員凍結令이라든가 아니면 新設機關에 대한 抑制政策 이러한 이유때문에 特殊教育研究院이 제대로 開院 돼 가지고 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표시를

하셨는데 政府로서 公務員 凍結令도 좋지 않지만 이런 불가피한 業務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政府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教育部는 이런데 대한 어떤 다른 部處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망이 어떤가에 대해서 次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시는 바 처럼 政府의 公務員 凍結令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部署의 人員을 늘리는 일을 억제하고 財政緊縮을 통해서 國家經濟를 착실히 운영하자는 이런 의도외에 정말 필요한 部署의 人員을 막는다고 하면 政府가 기능을 그만 두어야지 무엇때문에 政府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教育部의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의하면 罰則條項에 대해서 저희 黨이 金額이나 處罰의 기준이 衡平性을 잃고 있지 않느냐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教育法에는 義務教育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萬원의 過怠料를 賦課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經濟實情으로서 5萬원이라는 이 過怠금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오히려 저희 黨에서 주장하는 罰則에 대한 내용이 妥當性을 지니고 있고 지금 현행 教育法에 들어있는 이 5萬원이라는 額數는 있으나마나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5萬원 무서워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상향해서 나름대로 規則이라든가 法規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아무런 實效性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現實化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教育部의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舜衡 金仁泳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仁泳委員 지금 具昌林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朴錫武委員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教育部에서 公務員 凍結에 의해서 과연 教育시킬 수 있는 教員들을 양성할 수 있

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현재도 教育部 자체에 두명인가 세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普通教育局에 教育研究士 한명하고 教育研究官 한명 이렇게 두명이 特殊教育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民主黨에서 내놓으신 案대로 한다면 豫算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충 따져 보았더니 5,300億이상 所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政府에서 이 民主黨案에 대해서 과연 資金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運營費도 1년에 한 1,000億 가량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教育部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豫算이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이 教育機關을 어떤 곳에다 신설할 것이냐 아마 本委員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忠淸南道 天安市에 特殊學校를 설치한다고 할 때 그 地域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本委員이 알기로는 慶南에서 特殊學校 신설하다가 反對騷擾事態가 일어난 적이 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또 복잡해 집니다. 가령 首都圈 한군데에 特殊學校를 신설하겠다 하는데 그 地域에서 왜 하필 우리 學校로 오느냐 하고 反對騷擾가 있을 경우에 댄 데 또 못 짓거든요. 이런 문제 점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것을 깊이 음미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教育部 本部에도 지금 두분밖에 안계시는데 각 市·道教育廳하고 또 市·郡·區教育廳에도 特殊學校를 지도하고 감독할 公務員들을 많이 늘려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 教員도 제가 어느 教授한테 물어 보았는데 特殊學校를 전담하는 그런 教員 보다는 普通學校를 한 20年 이상 경험한 사람이 特殊教育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선생님들을 3.4年 現地에서 가르쳐서 그분들이 特殊教育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돈은 된다고 하더라도 教員確保問題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教育部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

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舜衡 너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그러면 教育部次官 答辯해 주시죠.

○教育部次官 李千洙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豫算問題라든지 또는 準備狀況 여러가지 實務的이고 計量的인 資料를 많이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먼저 答辯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豫算問題라든지 기타 準備狀況問題라든지 이런 것은 普通教育局長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特殊教育, 民主黨案에서는 研究院이라고 하고 저희는 特殊教育振興院이라 해가지고 職制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施設도 거의 完工段階에 있습니다. 來年 3月에는 開院이 가능할 정도로 豫算도 되어 있고 일부 準備要員들이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公務員定員凍結方針에 따라서 지금 定員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教育部職制를 自體人力을 활용해 가지고 特殊教育振興院에 필요한 人力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來年 3月 開院에 차질이 없도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罰則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朴錫武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教育法에 子女의 教育義務를 위반한 학부모에게 過怠料 5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子女教育義務違反으로 過怠料賦課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국민치고 子女教育義務를 위반할 그런 분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法的 違反이 있다 하더라도 法的 感情으로 볼 때 과인 그런 義務違反에 대해서 罰則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罰則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문제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양식의 문제이지 法的으로 강제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朴錫武委員 만약에 양식을 이야기 한다고 하면 다른 法에 어떤 罰則을 둘 수 없어요. 어떻게 罰則을 두는 것이 法인데 재가

제기하는 것은 專門委員의 지적에 이 부분과 5萬원의 過怠料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즉 말하면 民主黨案 罰則金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5萬원 賦課가 안되어서 그렇지 된다고 본다면 이 5萬원이 무슨 규제의 실효성이 있느냐 5萬원 무서워서 안하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면 모르지만 두기로 한다면 5萬원을 上向해야지 그 이상을 많다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이야기 했는데 그에 대한 教育部의 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教育部次官 李千洙 저는 이 過怠料罰則條項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罰則自體로서 父母의 子女에 대한 教育義務를 강제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罰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義務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罰則으로써 體罰이나 罰金을 上向調整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具昌林委員 여기 罰則에 早期教育園에 대한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에게 하는 罰則 또 特殊教育 對象者의 배치를 위한 지정을 거절한 사람과 教育機關長에 대한 罰則 그것도 안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教育部次官 李千洙 早期教育園에 대해서는 저희 改正案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具昌林委員 民主黨案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필요없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教育部次官 李千洙 그렇지 않습니다. 父母의 子女教育義務를 위반했을 때 罰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委員長 趙舜衡 그런데 5萬원 정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지요.

○朴範珍委員 特殊教育 專門家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外國의 경우는 特殊教育對象者를 갖고 있는 父母들이 자기 子女에 대해서 조금 귀찮게 생각해서 教育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就學兒童보다는 特殊教育對象者에

대한 義務教育 같은 것은 罰則을 더욱 강화해서 父母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 子女를 教育을 시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特殊教育 專門家들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父母들 스스로가 學校에 보내는 것을 기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國民에 대한 教育은 父母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國家가 그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教育法에서 정하고 있는 罰金 5萬圓 그것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特殊教育對象者에 대해서는 그 父母에 대해서는 罰則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教育部次官 李千洙 지금 罰金額數가 5萬圓이 너무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教育法뿐만이 아니고 우리 政府가 시행하고 있는 法律全體에 그런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法制處에서 전반적인 調整作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萬圓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만약 100萬圓이하 이렇게 上向調整된다면 지금 朴範珍委員님과 朴錫武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特殊教育義務違反에 대해서는 달리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趙舜衡 專門委員이 의견 좀 이야기해 주세요.

○專門委員 裴重燮 제가 衡平性問題를 이야기한 것은 特殊教育을 시킬 父母들이 그 義務를 위반할 때는 지금 教育法上에 過怠料로 되어 있는데 이 過怠料를 5萬圓이든지 50萬圓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體罰이나 아니면 罰金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 꼭 5萬圓이 적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음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過怠料는 좋지만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역을 보낸단지 罰金에 처하는 것은 조금 過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朴錫武委員 그 문제는 저희들도 專門家들

하고 많이 디스커스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방금 朴範珍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일부 父兄들은 그런 障礙人에 대한 노출을 꺼리기도 하고 그러가지고 그런 義務規定을 두지 않으면 많은 障礙人들이 신고도 안되고 또 教育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그렇기 때문에 強制規定을 두지 않고는 이들의 教育기회를 확대시킬 수 없다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른 專門家들과 諮問을 통해서 體罰이 아니면 罰金刑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審議過程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教育法改正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 過怠料 5萬圓은 有耶無耶한 형식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으로는 여기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教育部側에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字句修正할 수 있으니까 그 때라도 이 過怠料 5萬圓을 上向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손을 댈 수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가서 字句修正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教育部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때에 過怠料 5萬圓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50萬圓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上向調整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教育部次官 李千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報告말씀 드린중에 罰金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는데 그것이 罰金이 아니고 過怠料를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外國에서도 障礙兒에 대한 義務教育違反에 대해서 별도로 罰則을 강화하는 規定, 그런 예는 없다는 것을 지금 報告드립니다.

○委員長 趙舜衡 그런데 教育法에서 義務教育을 이행 안하면 5萬圓이든 50萬圓이든 일단 罰則을 정해서 강제하려는 의도로 정하고 있는데 특히 障礙兒童에 대해서는 아까 朴範珍委員이 말씀한 것처럼 사실 父母들이 일종의 귀찮기도 하고 수치심, 그런 것도 작용하고 해서 기피한다는 그런 이야

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罰則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일종의 行政罰인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行政罰에 있어서 體刑, 이런 것이 있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法體系內에서 이런 行政罰이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教育部次官 李千洙 지금 法制處에서 調整作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行政罰에 과인 體刑이 있는지, 어떤 유형에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이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나 전체 法體系로 봐서 너무 균형이 안 맞고 상충된다면 罰金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小委審議할 때 그것을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他 行政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普通教育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朴範珍委員님께서 豫算關係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豫算은 2001년까지 政府案으로 하면 33個 新設로 289億 그리고 民主黨案으로 하면 798個를 新設하는 費用으로 5,261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學校當 60名 6學級基準으로 하고 대지와 건축은 學校施設設備基準에 따라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비스와 기숙사가 포함되었습니다.

○朴範珍委員 政府案대로 하면 얼마예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289億이 되겠습니다.

○朴範珍委員 그것밖에 안 들어요? 지금 就學率이 41.7%인데...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學校를 제외하고 療育室이라든지 다른 비용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朴範珍委員 제가 質疑를 구체적으로 안해서 그러는데 지금 새로운 改正法에 의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國·公立이 없는데는 施設이 없으면 委託教育을 시키게 되어 있고

또 巡迴教育을 해야 되고 巡迴教育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個別化教育도 하고 治療教育도 시키야 되고 職業教育 시키고... 지금 이 改正된 法에 의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계산도 안하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제가 答辯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 計算에 의하면 2,700億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朴範珍委員 제가 보기에 더 들 것 같은데요.

○具昌林委員 教師 月給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예.

○朴範珍委員 施設費, 人件費, 教育費 다 전부 합쳐서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지금 現價로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今年을 기준으로... 民主黨案으로 하던가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5,261億원입니다.

○具昌林委員 그것은 幼稚園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예, 여기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政府案으로 하면 2,700億이고 民主黨案으로 하면 2,700億 플러스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까지 5,261億이 돼가지고 約 8,000億 정도가 되겠습니다.

○具昌林委員 지금 就學兒童의 반도 수용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40%밖에 教育을 못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倍로 늘어나는데... 지금 얼마 드는거예요? 私立學校가는 것 전부 빼고 이야기하면...

○朴範珍委員 法案審查할 때 더 자세히 해주세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이것은 자세한 계산을 해서 法案審查할 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朴範珍委員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人員數도 확대되고 就學率도 41.7%인데 人員도 확대되고 教育內容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具昌林委員 이 法을 철저히 시행하는데 豫算이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뽑으라니까요.

○委員長 趙舜衡 小委 審議할 때 제출하세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에.

다음은 具昌林委員께서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政府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하는데 우선 94年度 2學期부터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전부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教師는 지금 特殊學校教師가 3,300명정도 그리고 特殊學級에 3,2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教師를 양성하는 문제는 현재 國立公州大學校와 梨花女子大學校 檀國大學 全州又石大學 江南大學 大邱大學에서 每年 380명 정도를 양성하고 教育大學院에서 特殊教育專攻으로 100餘名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2001년까지 양성이 되면 敎員需給計劃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를 보아가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範珍委員 民主黨案대로 하면 敎師가 몇명 필요합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그것도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니까 豫算關係도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 人件費도 제대로 계산이 안된 것 아닙니까?

○教育部次官 李千洙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小委審議때까지 만들겠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基本法이 통과되면 여차피 事業計劃을 세워야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具昌林委員 研修院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梨花大學校 나왔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일단 1級 正敎師가 됐든 뭐가 됐든 된 다음에 다시 教育시키겠다는 말입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에, 再教育시키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그 코스가 몇年입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그것은 短期課

程과 長期課程이 있는데 아직은 特殊教育院이 설립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短期課程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두번 실시하고 長期課程은 3個月 내지 6個月 課程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具昌林委員 내가 外國例를 잘 모르는데 外國은 어떻습니까? 日本이나 美國이나 어떻습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具昌林委員 그것도 法案審査小委할 때 파악해 주세요.

○委員長 趙舜衡 뒤에 제신 두 분이 우리나라 特殊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이지요. 重責을 맡고 계시지요.

○朴範珍委員 지금 教育部의 特殊教育을 담당하는 두 사람입니까? 研究官입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研究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入學試驗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體力章의 경우는 무조건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試驗時間의 조정이나 장소에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점수는 20點중에서 14點을 주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니까 障礙者는 아니지만 조금 몸이 약한 사람들은 불리한 것 아닙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그 사람들도 기본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참여를 하면 기본점수가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기본점수는 다 똑같이 주어진다 말이지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그렇습니다.

다음에 沈明輔委員님께서 保社部, 勞動部 등 關係部處와 사전에 협의라든지 아니면 업무 협조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法制定에서부터 현재까지 保社部와 勞動部와 각각 협의를 하고 있고 이외에 保社部에서는 障礙人福祉法을 制定을 해서 障礙人들의 診斷 治療라든지 便宜施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保裝具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勞動部에서는 障礙人 雇傭促進法을 制定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든

지 100分の 2 이상의 障碍人을 취업을 시키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負擔金を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自閉症患者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情緒障碍者로 분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金仁泳委員님께서 特殊教育支援行政體制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教育部에는 현재 教育研究官 1人和 教育研究士 1人 각각 1名씩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에 教育部 義務教育課에 研究士 1名 있던 것을 研究官으로 해서 係單位로 조직을 하고 하부에 教育研究士를 두도록 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市·道 市·郡·區에도 마찬가지로 障碍人教育을 담당하는 獎學官이나 獎學士가 현재의 시설로 보아서도 불충분하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障碍人教育에 관한 基本法과 特殊教育振興法 改正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대 혁신을 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學校新設 反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今年度에도 國立으로 京畿 大田 慶南에 3個 特殊學校를 신설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마는 慶尙南道教育廳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도 敷地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一部 國民들의 의식이 特殊學校教育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地域教育廳 關係者와 一線教師로 하여금 地域住民을 설득하여 敷地確保問題를 해결하도록 하고 한편 매스컴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特殊教育에 대한 國民들의 이해를 적극 도모시켜서 앞으로 特殊學校를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國民의 여론을 무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

○具昌林委員 追加質疑 조금 하겠습니다.

高等學校教育도 無償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취지입니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特殊學校에는 高等部라는 高等教育課程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特殊學校 對象者들을

대상으로 하는 特殊學校에 출석하는 高等部 課程 學生들에 대해서는 授業料 入學金を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無償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그것은 義務教育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에, 義務教育과 별도로 저희가 幼稚部하고 高等部는 無償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그런데 來年度 2學期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다행스럽게 來年 新學期에 많은 학생들이 취학을 할 때 그러면 이 國家教育機關은 收容能力이 없고 私教育機關에 委託教育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委託教育하는 私教育機關이 학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豫算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취학하겠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아닙니다.

지금도 私立學校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授業料 入學金を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그것만 가지고 다른 학생들하고 형평이 맞느냐 이거지요. 다른 애들은 많이 내고 있는데 國家에서 위탁한 사람들은 조금 낸다 이렇게...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여기서 얘기하는 私立學校라고 하는 것은 一般私立學校가 아니고 私立特殊學校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私立特殊學校에 저희가 委託教育을 시키고 그 學校에서 授業料와 入學金を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私立特殊學校가 教育費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朴範珍委員 年間 얼마정도 됩니까? 入學金은 어느정도이고...

○教育部普通教育局長 李元雨 지금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早期教育園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未就學兒童을 대상으로 早期教室이라고 하는 特殊兒教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데가 月 30萬원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具昌林委員 하여튼 내년에 學生數가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늘어나 가지고 전부

취학한다 할 때 教育部가 豫算이 없어서 委託教育도 못하고 하는 사태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委員長 趙舜衡 教育研究官이 아시면 직접 答辯하세요. 아시는 것 있어요?

○教育部教育研究官 金源慶 教育研究官 金源慶입니다.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私立特殊學校에 관한 委託教育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70%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학교가 私立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이 지금 현재 막연히 無償教育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私立과 公立간에 教育與件 差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히 보조만 하는 그런 規定을 고쳐서 정확하게 地方自治 團體나 國家가 私立學校에 정확한 教育을 위탁시키는 근거를 도입을 함으로써 私立學校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부모들도 公立과 같은 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委員長 趙舜衡 그러니까 지금은 公立이 여건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같은데...

○教育部教育研究官 金源慶 지금 一部 私立學校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균적으로는 私立이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施設費같은 것이 계속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지금 얘기하는 一部 私立이라는 것은 비싼 곳 아니에요?

○教育部教育研究官 金源慶 지금 私立特殊學校에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無償教育의 범위가 授業料 入學金 教科書代는 全額 無償이고 그의 통학버스비용이나 그 다음에 寄宿舍費用은 지금 일부를 부모들이 擔當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經費外에는 일체 못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받지도 않고요.

○具昌林委員 이 特殊教育對象者 學生數는 어떻게 파악한 것입니까? 정확한 숫자입니까?

○教育部教育研究官 金源慶 特殊教育對象者 把握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마는 세계적으로 特殊教育對象者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다고 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推定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一部 團體에서는 자기네들의 주장을 위해서 40萬이다 200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면 來年度 就學兒童이 얼마라고 봐요?

○教育部教育研究官 金源慶 지금 國民學校 初等部 1學年에 7,800名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輕度障礙兒와 重度障礙兒를 전부 합친 얘기입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면 輕度 輕度 다 합쳐가지고 지금 就學兒童이 전부 中學校까지 해서 義務教育期間 다 합쳐서 몇 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教育部教育研究官 金源慶 23萬名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輕度障礙者들이 約 17萬名정도 됩니다. 이 輕度障礙者들은 弱視나 難聽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一般學校에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배려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이고 나머지 4萬3,000名 정도를 重度障礙者로 보고 있습니다. 이 重度障礙者들이 特殊學校에 다녀야 될 학생들입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면 그 숫자가 안 맞네요?

○教育部次官 李千洙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兒童數에다가 出捐率을 곱해 가지고 추정하는 그런 수치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統合教育을 시킨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統合教育입니까?

○教育部次官 李千洙 一般學級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委員長 趙舜衡 같이도 하는군요. 그리고 教育은 따로 받나요?

○教育部次官 李千洙 一般學校에서 따로 받는 것은 特別學級이고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은 特殊學校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具昌林委員께서 障礙者에 대한 體罰禁止條項을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質疑가 제셨는데 지금 현재 教育關係法에 體罰을 금지하는 그런 法的인 規定은 없습니다. 물론 障礙兒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罰則으로써 體罰을 금지한다는 그런 規定을 두면서 위반했을 때는 處罰하는 그런 것보다는 역시 教育的인 판단 사명감 이런 데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具昌林委員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현대사회가 지금 이상심리가 많은 사회 아닙니까? 복잡하고 여러가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범죄도 많이 늘고 그러는데 障礙者에 대한 體罰은 正常兒에 대한 體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體罰을 가하는 쪽이 거의 非正常的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教育的인 상태에서 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障礙者가 학교에서 과도한 體罰을 당했다 할 때 그것은 犯罪行爲입니다. 그것은 教育行爲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별을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보아서 어느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런 條項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인데 그 문제는 나중에 公聽會할 때 다시 한번...

○教育部次官 李千洙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犯罪的인 行爲에 대해서는 一般刑事犯으로서 다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崔英漢委員 저도 한 말씀 여쭙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障礙人教育을 위한 早期教育은 教育法 24條를 보면 早期教育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모든 現行 教育機關들은 허가가 아닌 認可를 받고 있지요? 이것이 달라야 하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왜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教育部次官 李千洙 認可 許可라는 것이 法理的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

실적으로는 큰 구분없이 여러가지 法令에서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의미로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委員長 趙舜衡 敎職局 職制를 보니까 幼兒敎育擔當官이 있지요?

○教育部普通敎育局長 李元兩 普通敎育局 職制에 幼兒敎育擔當官室이 있습니다.

○委員長 趙舜衡 그러니까 적어도 이 法이 처리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施行이 된다면 우선 급한 것이 行政組織을 적어도 課單位는 있어야 될 것 같고 擔當官으로 職制改正을 하면 또 部處間에 協議해야 됩니까?

○教育部次官 李千洙 예, 協議해야 됩니다. 저희도 案은 그런 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委員長 趙舜衡 어쨌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質疑는 아니고요. 社團法人 韓國肢體障礙人協會로부터 教育委員長한테 서신이 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고 하니 大學의 障礙人便宜施設 設置實態調查結果報告 및 協調要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政府와 國會에서 特殊敎育振興法改正을 추진하고 各 大學에서 신 체검사도 폐지되고 그래서 앞으로 障礙人에게 평등한 敎育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늘고 있다... 그래서 이 協會에서 전국의 120個 大學을 대상으로 해서 이 障礙人便宜施設實態調查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을 보내고 이 便宜施設을 좀 하도록 그렇게 협조해달라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基本法을 통과시키고 또 그에 따른 사업계획도 세우고 敎育財政도 확보를 하고 그래야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될텐데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런 문제는 教育部에서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豫算도 필요없고 障礙人福祉를 위한 조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사본을 드릴테니까 擔當課에서 教育部長官 名義로 各 大學에서 障礙人에 대한 便宜施設을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國立大學의 예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國立大學의 傾斜路設置率

이 18%밖에 안되어 있다. 화장실은 6% 專用駐車場 15% 駐車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私立大學이 오히려 傾斜路 19%이고 화장실은 8%이고 私立大學에 오히려 便宜施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國立大學부터 시작을 해서 私立大學은 철저히 行政指導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니까 나도 이것 처음 듣는데 障礙人福祉法 12條 5項에 이런 條項이 있습니다. 모든 教育機關은 障礙人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전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條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教育部所管이거든요. 모든 教育機關에서 障礙人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施設設備를 다해라 이것은 教育部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한 行政指導로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大學에서 便宜施設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내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니까 지금 委員長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公立이나 私立이나 初·中·高 特殊學校 거기에 저런 시설이 실제로 다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점검해서 알려주세요.

○朴範珍委員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障礙人에 대한 문제는 障礙人을 교육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건강한 國民이 障礙人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障礙人을 어떤 따뜻한 가슴으로 보느냐 이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具昌林委員께서 전국의 初·中·高等學校의 障礙人을 위한 시설 傾斜路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번 조사해서 報告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地域의 실태를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地域에 國家有功者중에서 傷痍軍警察家族이 한 100家口 정도가 저희 地域의 아파트에 特別分讓 받아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國家를 위해

서 헌신하다가 障礙人이 된 것이예요. 負傷兵들이예요. 負傷兵들... 그런데 一般入住民들이 國家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肢體障礙人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보기 싫다는 것이예요. 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말이지요. 이것이 될 일이나 한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障礙兒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건강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선에 가서 싸우다가 겨우 살아나서 國家有功者로서 아파트特別分讓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障礙人을 보는 시각을 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障礙人들을 위해서 就業場을 마련하기 위해서 障礙人工場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地區黨과 區廳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가난한 동네에다가 障礙人作業場을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 주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예요.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게 사는 층이예요. 그분들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特殊教育振興法 이 法을 改正을 하면서 하여튼 이것이 特殊教育對象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도 이 特殊教育對象者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具昌林委員 지금 여러가지 廢棄物 그것도 몇 年동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안 보는데 지금 朴範珍委員 말씀이 맞는데 特殊學校를 설립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國家가 어떤 強制力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이 法案에다가 넣는 것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普通教育局長이 홍보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통해서 안됩니다. 지금 그런 때는 지났어요.

이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一般廢棄物 이런 것하고 달라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強制條項 넣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주세요.

○委員長 趙舜衡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그러면 教育部側에서는 資料를 준비해서 이 다음 小委員會에서 審議할 때 對備해주세요.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質疑를 終結한 것을 宣布합니다.

이 두 件의 法律案은 이미 構成되어 있는 法案審查小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查報告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小委員會에서는 오늘 제시된 많은 의견과 또 앞으로 개최되는 公聽會에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 두 法案을 진지하게 審查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公聽會 준비를 위하여 休會하고 第10次 委員會는 모레 11月25日 10時에 開議하여 特殊教育에 관한 公聽會를 開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42分 散會)

○出席委員

趙舜衡	金仁泳	具昌林
金榮龜	朴範珍	宋光浩
沈明輔	崔英漢	朴錫武
金元雄	張永達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門委員	襄重燮
立法審議官	金煜鎭

○出席政府委員

教育部	
次官	李千洙
普通教育局長	李元雨
教職局長	崔鈺植
社會國際教育局長	金成東

○政府側參席者

教育部教育研究官	金源慶
----------	-----